▶▶ 매일 INDEX

3면
"할아버지는 5·18 죄인이고 학살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윤 2월 13일) 제323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북 특화형 방위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31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K-방산, 안보 전략 및 산업화 포럼'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국내 핵심 방산기업, 대학 및 전·현직 방위산업 최고 권위자 등 참석자들이 포럼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5 재선거 사전투표 도내 투표율 9.81% 그쳐

전주을 국회의원 10.51%
나선거구 군산시의원 6.75%

4·5 재·보궐선거에 대한 사전투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됐다. 전북지역의 사전투표율은 9.81%에 그쳤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군산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에 대한 사전투표율은 전체 선거인 20만4,994명 중 2만114명이 투표, 9.81%의 사전투표율로 마감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체 선거인 16만6,992명 중 1만7,543명이 투표 10.51%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과거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율은 31%, 전주 덕진구 사전투표율은 32.3%였다.

군산시의회 나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는 전체선거인 3만8,072명 중 2,571명이 투표해 6.75%를 보였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며, 군산시의회 나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는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후보자등록으로 인해 치러진다. /특별취재반

전북 특화형 방위산업 육성 도전장

K방산, 안보 전략 · 산업화 포럼

도, 지역 강점 활용 신기술 기반 맞춤형 방산체계 구축
핵심 방위산업 기업 유치 · 연관 도내기업 상승효과 기대
권역별 방위산업 연계방안 마련… 방산 허브 조성 추진

전북도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북 특화형 방위산업 육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서울 aT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핵심 방산기업, 대학 및 전·현직 방위산업 최고 권위자가 참석한 가운데 'K-방산, 안보 전략 및 산업화 포럼'을 개최했다.

'K-방산, 안보 전략 및 산업화 포럼'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 특화형 방위산업 체계 발굴과 지자체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방위산업 허브, 전라북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방위산업 포럼은 1부 출범식, 2부 주제발표와 3부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1부 포럼 출범식은 김관영 도지사의 개회사를 비롯해 포항공대 총장, 전북대 총장 및 방위사업청 차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2부 주제발표에서는 전북도에서 특화영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위산업 무기체계를 핵심 주제로 AI, 무인기 센서, 양자 기술 및 탄소섬유 등의 방위산업 활용과 개발 방안이 논의됐다.

마지막 3부 패널 토론에서는 최성빈 LIG넥스원 고문을 좌장으로 미래 전북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전문가 패널들이 권역별 방위산업 협업, 인재 육성, 그리고 새만금 지역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전북도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복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가 방위산업은 지난해 173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전북도는 국가적 위상과는 별개로 방위산업 육성의 후발주자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말, 국방과학연구소(ADD), 군산대와 함께 '국산 탄소섬유 적용 국방·위성 발사체 개발 및 센터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강점을 활용한 신기술 기반 국방·우주분야 신산업 발굴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포럼 역시 전북도의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대내·외에 밝히는 자리이자, 전북의 새로운 도전과 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허브로서 새만금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도내·외 대학 간 협업을 통해 도내 방위산업 관련 인재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타 지자체와 중복되지 않는 신무기체계 영역을 산·학·연이 공조해 집중 발굴, 선점함으로써 향후 방산기업을 도내에 유치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은 물론 연관 도내 중소기업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적극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은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의 강점인 새만금의 가능성과 탄소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학계, 관계기관 등과 소통하며 핵심 방산기업의 투자 유치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전북-수원, 상생발전 '첫걸음'

관계인구 형성 합의문 채택… 고향사랑기부제 등 협력

전북도와 수원특례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관련사진 2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달 31일 수원시청에서 만나 '전북-수원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상생발전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도와 수도권 기초지자체 간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양 기관간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이행하고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협력사항은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모델 구축·홍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참여, △보훈단체 소통·교류 확대, △전북 우수 농·특산물 수원시 로컬푸드직매장 공급·확대, △공립미술관 협업 네트워크 강화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를 계기로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수원시는 전북도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해당 분야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 지역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관영 지사와 이재준 특례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동참을 위해 상호기부하고 협약과 더불어 양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업무협약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내년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우리 전북도와 작년 특례시가 된 수원은 특별한 변화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협력할 부분은 함께 힘을 모아 상생발전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같이해, 관계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지역 간 상생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폭을 넓혀 지역의 사정, 지방의 현실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김 지사는 수원시청 전 공무원 대상으로 강연을 펼쳤다. /김재훈 기자